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5

May 2021
Vol.9 No.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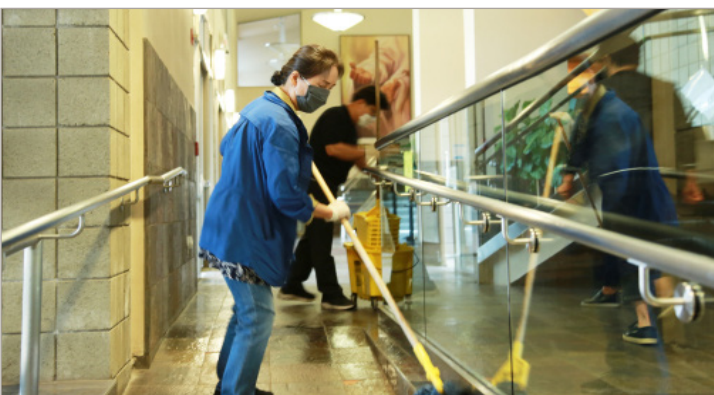
- 주안예세마장학회
- 선교지 방문
- 영커플/ EM / 교육부
- 간증 / 기고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팬데믹에 갇혀 지낸지 1년, ZOOM 안에서 만나던 영커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5월 16일 주안예만찬에서 새롭게 편성된 목장에서 각자의 소개를 하고 있다. 앞으로 영커플은 3개의 목장으로 구성되어, 탄탄한 양육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다. <양영 기자>

‘6-6-2021’ See you Again!



■ 전면 대면예배 전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6월 6일 부터 대면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안예교회 밸리채플 에서는 토요일인 5월 29일을 전교인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연세가 많은 은퇴장로님과 권사님들부터 유년부 고사리 손까지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벽 7시부터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각 목장이나 사역국별로 청소할 장소를 구별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청소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에는 각자 집에 있는 청소기나 스펀지 약품등을 챙겨서 오는 모습에서 일상의 회복이 가까워짐에 안도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5면에 계속>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세마장학회

2세대들 성경암송 열기, 장학금 기부 이어져

주안에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2세대들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시작한 세마장 학금 받기 성경암송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 가고 있다.

지난해 말 시편을 비롯한 신구약성경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10개 장(편)을 제시한 후 매달말 암송한 분량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평가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지 5개월, 현재 ICKidz, ICY, EM 대학부에서 48명이 참여해 4명은 이미 암송을 끝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열심을 내고 있다.

평생 성경 한장도 암송하기가 어려운 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어린시절 암송한다는 것이 장학금보다 몇 배 더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을 격려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장학위원으로 섬겨주셔서



오는 8월말 예정인 장학금 수여식이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있다.

조용대 장학위원장은 “아직 3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해 주어진 성경말씀 중 한 두장이라도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고 학부모들에게

당부한다. 물론 암송 분량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이 참가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주안에세마장학회와 성경암송에 관한 문의는 교육부 담당 전도사에게 하면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시편119:105) | 조용대 기자 |

■ 교육부/ VBS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6월 17~19일 만나요

어느새 여름성경 프로그램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Treasured 라는 제목 아래 Discovering you're priceless to God, 당신이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임을 발견해 보는 주제로 준비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껴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더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게 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부딪치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돌아보시며 도움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찬양 속에 은혜받고 영의 회복이 있으며 교사들과 줌 교제를 통해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는 좋은 추억이 되길 기도합니다. | 이니콜 전도사 |

■ 교우동정

이규혁 · 유문영 집사 가족 텍사스 이주

MP15목장(목자 문성훈 집사, 문수경 권사)의 이규혁, 유문영 집사 가족이 5월 14일 텍사스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4월의 마지막날, 우리 가족은 조금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오늘은 유문영 집사 가족이 텍사스 이주를 위해 집을 보내는 날, 분주하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방문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브랜드, 케이트, 애블린 삼남매도 안보는 동안 훌쩍자라 있었고, 이 집사 내외는 집을 싸고 정리 하느라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유문영 집사는 키즈에서도 찬양 울동으로 봉사하고, 삼남매의 엄마이자 친정아버지를 모시며 맞벌이 까지 하는 수퍼우먼, 코로나 기간 카톡으로 전화로 꾸준히 마음을 전하고 중보하며 화이팅 하던 때가 떠올라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낮선 텍사스에서 잘 정착하고, 삼남매도 믿음생활 잘해 하나님과 사람앞에 사랑받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성장하길 기도해 본다.

| 이성은 기자 |



■ 선교지 방문

팬데믹 속 고단한 삶 이어가는 이웃들 격려

5월 19일 아침 9시, 최혁 담임목사님의 지도와 교역자님들의 배움을 받으며 김영기 장로님, 김경배 장로님 그리고 윤종화 장로는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이번 선교의 목적은 여유로 남아 있던 큰 밴을 루디 목사님 교회에 기증하고, 또한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새벽에 카말루에서 라면과 마스크를 나누며, 마약 재활원을 둘러 점심과 마스크를 나누려는 목적이었습니다.

3분의 장로님들은 2대의 밴에 나누어 타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멕시코 국경을 통과할때는 늘)으로 국경에 도착했는데,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사통과시켜 주었습니다.

2시경에 엔세나다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루디 목사님 일행을 만나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밴 전달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코스트코에서 예배 후에 교인들 그리고 내일 재활원들을 대접할 칠리 핫도그에 들어갈 재료들을 구입한 후, 루디 목사님 집을 향하였습니다.

6시경에 교회에 도착해서 화장실 개축과 완성된 수도물 지하 탱크도 둘러보았습니다. 7시 반 경에 예배가 시작되고 150명가



멕시코 루디 선교사 가족과 선교팀

량 모인 교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예배 후에는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맛있는 칠리 핫도그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루디 목사님 집에 돌아와 새벽 사역 준비를 끝내니, 거의 12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50분이 걸려 까말루 버스 정류장에 5시경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농장 일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복잡을 피하고자 2개의 부스를 설치했는데, 라면이 약 350개, 마스크는 1,000개(한 사람당 3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14살 된 앳된 여자 일꾼들도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10시경에는 마약 재활원에 들러 예배드린 후, 마스크와 칠리 핫도그를 나누어 주었는데, 남자들은 4-5개를, 여자들은 2-3개를 먹을 만큼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늘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음식이 남을 일도 없지만, 설사 많이 남아도 절대로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짧은 1박 2일의 일정이었지만, 주안예교회 교인들을 대표해서, 팬데믹 기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알차게 실천하고 돌아온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 윤종화 장로 |

■ 교우동정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승환 안수집사, 김현숙 권사/ 딸 졸업식 보스턴 방문

보스턴칼리지 대학원을 졸업하는 딸 하연양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지난 22일부터 3박4일 보스턴을 방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팬데믹으로 지난해 대학 졸업식에도 가 보지 못해 섭섭했는데 이번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학부 대학원 동시 프로그램으로 5년만에 매스터를 끝내게 되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 드리고 열심히 공부해 준 딸이 무척 대견스럽다고... 1년간 코로나로 간혀 지내다 해방(?)되어 보스턴 지역 명소들이 구경하고 온 가족이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남겼다.



박세호, 이지현 성도/ 첫 아들 베이비샤워

지난 22일, 화창한 토요일에 다저스 스타디움 근처에 있는 공원에 박세호, 이지현 성도의 첫 아들인, Lucky(태명)의 베이비샤워를 위해 영커플 멤버들이 모였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리였다. 아이들은 푸른 풀밭에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나누지 못했던 답소를 나누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한 달 후면 만나게 될 Lucky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단체사진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세네갈 노금석 선교사)

아프리카 사역 25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사는 영혼구원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날들이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 시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을 마치고 학군장교로 임관하여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선교단체 수련회에 친구의 초청으로 참석하였는데 저녁 주제강의 때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불처럼 뜨겁게 내 마음을 달구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은 그 동안 품어 왔던 근본적인 숙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

했는데 특히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마치면서 그분의 강권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저의 고백이 되어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래에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할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선교지로 나가기 결심했습니다.

1996년 1월, 저희 가족(당시 하영 3세, 하민 6개월)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파송교회에서 세네갈의 율로프 종족을 입양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후에 전임선교사의 나환자 사역을 협력하며 다카 국립대학 학생인 폴 파이를 만나서 설교원과 교정의 도움을 받고 불어를 익히며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폴 파이 학생은 그의 친구들(프랑크 바센과 장망가, 폴 디우프)을 인도하였고 매주 선교사의 집에서 성경공부를 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이 저의 사역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2011년 제3기 안식년 동안 딸 하영의 대학진학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11월 중순에 갑작스런 급성폐렴진단을 받은 오승숙 선교사는 3주 만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에 상실감을 간직

한 채로 하영이는 한동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에 남게 되었고 저와 하민이는 세네갈 선교지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새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2006년 세네갈에 봉사단원으로 교육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현지언어 훈련과 문화적응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최영주 선교사는 2013년 8월 저의 파송교회인 부산용산교회에



장함으로 제대로 닭 울음소리도 못내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수탉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교사역을 두 종류의 닭에 비교해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계닭처럼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의 일꾼들이 생겨나고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자녀들이 생겨야 하기에 자발적 복음전파를 위한 생명력 있는 유기적 선교, 즉 순환하는 선교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장한 형제들이 그들의 사역지에서 뿌리를 잘 내린다면 여러 주변의 위협과 고난이 있어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위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고 많은 인내심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이 땅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자훈련과 신학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삶으로 검증된 일꾼들을 세우고 그 후로는 멘토로 남아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생명력이 있고 자립적인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그들의 이웃인 무슬림들 가운데 영향력이 나타나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역비전은 첫째는 세류지역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청소년 다목적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민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5세 미만인 청년 및 청소년, 어린이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미 확보한 선교부지(6200m²)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카 국립대학생 공동체 기숙사 사역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도구로 계속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노금석 선교사



서 파송식을 갖고 지금까지 세네갈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일찍부터 수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수고해온 곳입니다. 그렇지만 세네갈 교회의 경우 쏟아 부은 물질과 시간 그리고 희생에 비해 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세류 사역지에서 현지인의 집을 개조해서 중고등 학생들과 살면서 성경에서 찾은 삶의 원칙을 그들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기간 내내 고민을 하며 기도해온 세네갈의 복음화가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답장이 없이 살 때 옆집 토종닭이 먹이를 찾아 드나드는 것을 보고 생명력 있는 선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토종닭은 유정란을 낳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살아가지만 닭은 닭장에 갇혀 주어진 사료를 먹고 재생산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현지의 형제들과 양계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짧은 기간에 성

■ 벨리 17목장

대면 목장나눔 재개, ‘월남국수 맛있어요’



지난 4월 부터 벨리채플 17목장(목자: 이복희 권사) 에서는 대면으로 목장모임을 시작하였다. 모임 전에 카톡으로 투표를 해서 가장 먹고 싶은 것이 월남국수로 의견이 모아져 장소는 쉽게 결정이 되었다. 1년넘게 Zoom 으로만 모이던 목장모임이 대면모임으로 전환되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예전의 모임보다 몇배나 더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 임용자 기자 |

■ 벨리 권사회



봉사자들 위한 ‘엄마 도시락’

코로나 기간중에도 교회부역은 봉사자들로 인해 바빠 돌아가고 있었다. 벨리 1, 2, 3 권사회에서는 매 주마다 간단한 아침과 점심으로는 샌드위치와 스낵 30인분을 준비하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분들이 편안히 식사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5월달에는 제 1권사회(72세 이상)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믿음과 봉사의 본을 보여주신 어머니님, 할머니님, 권사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 임용자 기자 |

■ MP 안수집사회

새로운 채플에서 새롭게 출발 다짐

MP 채플이 BP 채플로 이진함에 따라 MP채플 안수집사회(회장 김재동집사)가 지난 5월 15일(토요일) 오후 3시, 김재동 회장택에서 마지막 임원모임을 갖고 지난 2년 반 동안의 일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MP 채플과 MP 임시예배처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함께 했던 모든 MP 안수집사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BP채플 안수집사회가 구성되면 현재 남아있는 회비 전액을 전혜드리기로 결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BP채플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며 협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모임과 함께 간단한 햄버거와 커피로 늦은 점심을 하며 즐겁고 행복한 교제의 시



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의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늘 헌신하신 MP 안수집사회 임원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신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김재동, 부회장 박상욱, 오춘수, 총무 조원, 서기 최찰스, 회계 조정일 (이상 존칭 생략) | 이광영 기자 |

〈교회대청소 · 1 면서 계속〉 오랜만에 만나서 토틀히 얘기꽃도 나누어가며 첫 대면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구석구석 힘들지만 기쁨으로 움직이는 손길들은 각각의 신앙의 본성을 집착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봉사자들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손놀림은 주방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벨리 제3권사회는 아침 간식부터 시작해서 점심식사까지 100여 명이 넘는 봉사자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청소 못지않는 수고를 감당해 주셨다.

그간의 힘들었던 시간들과 허전했던 마음을 맡곰히 씻어내듯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게됨을 감사드리는 축제같은 대청소의 날이었다.

■ 사진으로 보는 한달



영커플 주안에만찬

푸르른 5월... 활기 넘치는 주안에 가족들



'나는 청소 왕' 부모님을 따라나와 교회청소를 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다부지다

■ Celebrating Mothers with Manicures

“As a mother comforts her child, so will I comfort you;...”

My goodness, has this month flown by! MAYbe it's the weather, MAYbe it was Tax Day, MAYbe it was the impending urgency we all feel when Mother's day shows up all of a sudden (or maybe we're all just trying to run away from my terrible puns). Whether church or life, it's been jam-packed, and what a Good God we have that is there with us throughout the hectic business of coming out of the pandemic into somewhat-normal life.

One thing I'm sure our entire EM has definitely been busy with has been the return to in-person worship, and let me just say, it's miraculous how smoothly it's gone. We've been having socially-distanced in-person worship for almost two months now, and by God's grace and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during our time together, there have been no issues with COVID-19, and I think I speak for all of us when I say it's been an immeasurable blessing. Just being able to belt out singing praise (is Newsom still banning singing? Who knows), catch the occasional awkward eye contact with someone across the pew, and spend time mingling (safely)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has shown me how crucial human interaction is to our faith.

Speaking of mingling, we got tons of that when we painted each other's nails for Mother's day. Trust me, the guys defi-



nately need the practice. And whether the kits we took home were used to bless our mothers, aunts, sisters, or any other woman who is precious to us, what a beautiful reminder we have this month of the women who brought us into this world. Who incomparably live out and share a selfless love that only the love of Christ can compare to. They'd give us the world ten-times over if they could,

and even after that, if you so much as briefly mention being hungry, they'd be ready to whip you up your favorite meal.

As I mentioned above, time flies; five minutes becomes five years in the blink of an eye, so cherish the mother God has given you. Pray for her as she prayed for you, for God cherishes her as His beloved daughter, created beautifully in His image. | Paul Yang |



■ 아리조나 페이지와 유타주 케납여행

사막과 협곡, 밤하늘 은하수 ‘환상의 세계로’

아리조나주와 유타주가 만나는 서부 접경지역에 케납이라는 도시와 페이지라는 도시가 있는데 대략 1시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두 도시는 미서부의 황량한 사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과 하이커들로부터 최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아리조나주의 페이지 도시가 품고 있는 유명한 관광명소를 소개한다.

첫째는 자연 보호주의자이며 탐험가인 John Powell의 이름을 붙여 만든 파웰호수라는 커다란 인공호수가 있다. Powell이 이 그랜드캐년을 비롯 미국 서부 지역의 자연 탐사를 위해 수고한 그 공로야 말로 길이 길이 간직해야 할 유산이기도 하다. 이 호수에 물을 저장하는데만 무려 17년의 긴 세월이 걸렸다. 이 호수에 글렌캐년 댐이 있는데 이 댐은 미국에서 9번째의 규모로서 발전용 댐은 아니고 그랜드캐년을 통과하는 콜로라도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페이지 도시와 인근 케납은 물론 주변의 크고 작은 마을에 용수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댐이다.

파웰 호수에서는 개인 요트 및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캐년 깊숙히 여행을 위해서는 무려 6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레인보우 아치’가 호수 캐년 깊숙히 숨겨져 있어서 이 아치를 방문하는 이들로 탄성이 끊이지 않는다.

둘째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함께 위치하고 있고 이 보호구역에는 ‘엔텔롭캐년’이라고하는 작은 협곡이 있는데, 물이 깎아 만든 캐년의 벽면에 빛으로 옷을 입혀 붉은 나바호 사암층의 캐년 벽면을 네온 오렌지 칼라의 황홀한 전경으로 바꾸어 놓는다. 창조주의 솜씨가 엿보이는 아름다운 곳이다.

셋째는 파웰호수의 글렌캐년 댐에서 출발하는 거대한 강줄기의 흐름이 갈라진 협곡을 마치 말발굽처럼 만들어 놓아 ‘말발굽 캐년’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마치 한국의 동강의 모습과 동일하다. (규모는 따라 올 수 없지만...)

이곳 글렌캐년 댐에서 그랜드캐년의 콜로라도 강을 따라 래프팅을 즐길 수도 있다. (4박5일에서 15박16일 까지 다양한 코스가 진행된다)

넷째는 하이커들과 사진작가들을 위한 곳인 ‘The Wave’라는 곳이 있다. 사암층의 바위 물결이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솟아 있어 부서지기 쉬운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그 물결 모양의 경이로운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루 56명만 입장이 가능한 철저히 보호, 보존되는 곳이다. (퍼밋을 위

해 하루 수만명이 지원을 하는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이곳 The Wave의 하이킹 출발은 유타주에서 시작하지만 캐년은 정작 아리조나주에 위치하고 있다.

페이지 도시는 지금은 광산 활동이 멈추었지만 한 때 구리와 망간 광산이 운영되기도 했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관광산업으로 도시가 운영되고 있다. 약 8000명의 소도시 인구가 약 4백만명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유타주의 관광명소를 짧게 요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케납 주변으로 한정한다면 하이킹과 밀키웨이 갤럭시 은하수 여행을 이야기하고 싶다.

특히 케납에서의 하이킹은 슬랫캐년 하이킹이 대세이다. 케납에서 가까운 Toadstool Hoodoos, Lower Hackberry Canyon, Buckskin Gulch, Cottonwood Canyon, Arstrom Point 등 많은 하이킹 코스들이 짧게는 3-4시간, 길

게는 일주일 여정의 긴 코스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캠프라운드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단위로 하이킹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별히 Buckskin Gulch(숫사슴 혹은 양들의 꺾질을 벗기고 나면 아주 부드러운 속살이 나오는데 이 캐년의 벽면이 물에 의해 깎여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붉은 네온 오



렌지 색상을 띠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의 경우 협곡을 따라 4박5일 정도를 하이킹해야하는 곳이지만 대부분 캐년의 일부를 5-6시간 정도 하이킹하고 출발점으로 돌아오게된다.

그리고 미서부의 유타주는 ‘International Dark Sky Zone’으로서 그믐때 밤하늘의 은하수 촬영을 하기에 아주 적합곳으로 지정된곳이다. 달빛이 강하거나 주변의 도시 등에서 번져오는 강한 불빛이 은하수를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이곳은 광해(빛 공해)가 아주 적은 곳이라 많은 사진 작가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곳이다. 특별히 케납 인근에 있는 거의 모든 하이킹 트레일은 은하수 촬영에 적격이다. 깜깜한 밤하늘에 떠오르는 은하수를 바라보노라면 어릴적 동심의 세계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추억속에 잠겨 콧노래로 흥겨워진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 동남쪽 하늘로 부터 떠오르는 밀키웨이 갤럭시, 이미 10만 광년(광년: 빛이 1년동안 가는 거리) 전에 출발하여 지금 이곳에 도달한 빛이지만 그 오랜 세월 속에 여전히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오는 창조주의 메시지를 마주하게 된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 윤성문 집사(전문여행가이드) |

■ 음악칼럼

■ AMPM 기도회 간증

바흐와 헨델

음악의 아버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음악의 어머니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한 번쯤 들어 본 이 명칭은, 사실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만들어 낸 말이다.

둘은 1685년 같은 해에 독일에서 (바흐-3월 21일, 헨델-2월 23일) 출생하였다. 바흐는 유서 깊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음악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성장했다. 아버지가 63세에 얻은 늦둥이 헨델은, 음악과는 거리가 먼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특출한 음악적 재능과 열정으로 음악가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평생 독일 밖을 벗어난 적 없는 바흐에 비해 헨델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음악적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 애썼다.

바흐는 그가 작곡한 모든 작품의 표지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기록할

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평생을 교회에 머물며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였다. 그저



무명의 시골교회 음악장으로서 삶을 마감했으나, 사후 멘델스존에 의해 작품의 위대함이 재조명되며 비로소 절대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헨델도 기독교인이었으나 궁정과 교회에서 벗어나 대중을 상대로 한 작품을 주로 썼다. 음악가로서의 성공을 열망했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화려한 색채의 음악을 선보였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자유롭고자 했고,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전 유럽에서 천재음악가로 칭송받으며 부와 명예를 누렸다.

둘은 말년에 같은 의사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바흐와 헨델 모두 실명 후 사망하게 된다.

교회에서의 봉사를 자신의 천직으로 알며 가장으로서 밤낮없이 일하는 소박한 삶을 살았던 바흐, 성공을 위해 매진하지만 윤택이 없는 삶은 싫어했던 헨델. 둘은 성격만큼이나 다른 삶의 궤적을 보였지만,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두 거장으로 손꼽히며 오늘날까지도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 황성남 집사(성가대 지휘자) |

중보기도의 은혜

주안예교회가 Zoom 을 통한 AM PM 기도회를 2020년 9월 28일에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도방에는 4분 장로님, 6분의 권사님과 한 분 안수 집사님이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기도회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자리를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여행을 떠나시기 위해 일찍 자리를 떠나 보다고 혼자 생각 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자리를 못 지키시기에 연락을 해야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도 팀의 권사님 한 분이 알려주시기를 성경 공부반에도 결석인데 계속 설사를 하고 어지러워 누워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해보았더니 장염이라서 약을 복용하며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지럼증이 생겨 온 세상이 빙빙돌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이었고, 장염까지 와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데 세상이 빙글 빙글 돌고 있으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뇌 CT를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도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리에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부터 기도 팀들과 이영선 권사님을 위한 도고 기도에 들어갔지요.

2주 후에 권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남편 집사님이 누구와 인사하고 있는 중에 이영선 권사님이 혼자 걸어 오는데 완전히 갈 지자로 휘청대고 걸어 오고 있어서 놀라 뛰어가 잡았었지요.

다음날 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권사님을 위해 우리 기도 팀들의 도고 기도가 계속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와 주안예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나는 주님께 일러 바치기를 쉬지 않고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 못하던 권사님이 5월 16일 참석해 나를 보더니 급히 와서 포옹을 하는 것에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심한 이명을 느꼈습니다. 2-3년 전인가 제가 이명을 느끼며 주치의한테 증상을 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권사님! 제가 좀처럼 '나이 먹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이건 어쩔 수없이 그렇게 말해야 해요. 이명은 나이 먹으면 자연히 오는 거예요.” 하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무심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해진 이명이, 약한 것들이 나를 귀찮게 하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님께 기도 했지요. 그랬더니 깨끗이 나아받아 잡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맑은 것을 왜 진작 기도해서 없애지 않았던거야?!

이영선 권사님의 CT 결과도 정상으로 나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또 우리교회 속에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또 하나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격려하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하므로 찬양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겔 36:37)



이에스더 권사

■ 성경통독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의
머무름’

주안에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성경 통독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주



신정원 성도

안에 말씀을 듣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함께 하고 싶었지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혼자 성경 통독을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었다. 하지만, 성경책의 반도 읽지 못하고 끝났었던 기억이 있다.

비록 이번 주안에 말씀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함께 성경 통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을 때 주안에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하다.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했고, 늦은 밤에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심에도 너무 감사했다. 나는 평소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시간들을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는 데에 쓰다보니 괜한 생각과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주셨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았다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알게하시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하심에도 감사하다.

아직은 1독밖에 하지 않아서, 눈으로만 읽고 지나쳐 간 말씀이 많지만, 앞으로 계속 성경통독에 도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의 답이 되실 하나님을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분주한 삶 속에서 많은 생각과 집들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주안에 말씀에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마귀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올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말씀을 꼭 통독하겠다고 다짐하며 16기 성경통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통독시간이 되면 한치의 어김없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이 현실이 되는 시간을 접하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악의 무리가 일한다는 사실에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만 여겼었는데... 하찮은 저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현실 앞에 놀랐습니다.

화요통독시간! 그 시간만 되면 기다렸다는듯이 어찌나 아픈지... 온몸을 이대로 침대에 맡기며 쉬고 싶은 마음... “너 오늘 수고하고 힘들었잖아, 몸살에 약까지 먹었는데 말씀을 읽겠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얼른 쉬어야 내일 또 출근하잖아” 라며 나를 다독이는 따뜻한 그 한마디에 어느덧 포기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래 포기하자. 4개월 동안을 어떻게 거르지 않고 읽겠다고... 중도에 포기하느니 차라리 시작하는 지금 그만두자.” 라며 ‘마귀가 주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약속!’ 이 내 맘에서 요동치며 한 두달

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통독 훈련을 이렇게 무사히 거뜰히 마칠 수 있도록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다짐하며 약속을 지키야겠다는 의지 앞에선 마귀도 포기하며 돌아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서 살아온 오늘을 반성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래가사처럼 아직은 “다 표현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닦지 못해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남아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들의 몫” 이란걸 깨닫게 해 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안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안에서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겐 “힘 주시는 주님!” 이 계시잖아요.



조나미 집사

말씀이 가져온 변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09:105)

말씀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안에 말씀을 통하여 퍼즐과 같은 수많은 말씀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며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이 났다. 때로는 그냥 읽어 나가는 소설과 같았고 때로는 숙제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말씀이 살아서 일하고계심을 느꼈다.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생소했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소망과 확신이 생겨 결단을 하기도 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부터 영적인 채움을 느끼기도 했다.

가장 화실한 변화라면 딸을 하나님

께 내려놓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딸에 대한 주권양도를 하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가져오기를 반복하며 딸을 통하여 자랑거리로 삼고 싶고, 만족하려 했던 수많은 욕심으로 딸과의 팽팽한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고 딸과의 전쟁에서 내려놓는 승리를 하게됐다.

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와 섭섭함을 서로 울며 기도하는 시간도 경험을 하게 되었다. 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회복과 확신, 영적인 성장의 승리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잃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기 위하여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 박민주 성도 |

■ 편지문/ 전영옥 집사

■ 주삶을 끝내고

제주살이 3주차 Slow-Life의 즐거움

할렐루야, 코로나시대를 살면서 2021년은 우리부부에게 많은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준 특별히 기억되는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30여년을 일해 온 직장생활을 작년말로 은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은퇴한 남편과, 또 지난 4년간 우리 부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준 반려견 Ivy와 함께 고국방문을 꿈꾸며 기다리던 중 백신접종을 마치고 드디어 지난 4월 24일 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말로만 들던 2주간 자가격리... 24시간을 방 안에 갇혀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이 곳 시간으로 매주 월요일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리고 최혁 담임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통하여 저희부부는 영적 회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격리해제가 되자마자 출입국관리소로 가서 거소증을 신청해 놓고 다음날 거처를 옮겼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한달살이 숙소와 전기차를 렌트하고 제주시구좌읍 종달리에서 제주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우도와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숙소는 제주시 동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이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라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곳이지만 이 곳 주민들의 Life Style 은 매우 여유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Slow Life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닷새 마다 열리는 시골 5일장은 제주에서 나고 키운 각종 신토불이 채소와 과일, 그

리고 맛깔난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다녀본 제주를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이라 늘 가는 곳만 다녀서인지,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찬찬이 돌아 본 제주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곳이 많았습니다. 섬 구석구석 보석같이 박혀 있는 명승지들...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섭리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다녀온 성산을 섭지코지는 일출봉 못지 않게 드넓고 아름다운 평원과 오름이 함께 하고, 둘러싸인 절벽과 높게 자란 갈대, 이름 모를 작은 들꽃들의 어울림이 그림처럼 기억의 한자락에 남아 있습니다. 산책하는 것 만으로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제주시 안덕면에 자리한 박수기정과 안덕계곡도 유럽 어느 해변 마을에 온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절경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비가 내렸는데, 맑게 갠 오늘 아침 숙소에서 23km 떨어진

허브동산에 다녀 왔습니다. 낮에는 꽃구경, 밤에는 빛에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2만6000평의 넓은 수목원에 16개의 테마동산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약 300만개 이상의 조명이 들어와 환상적인 빛의 세계가 펼쳐 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고, 이번 고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보고 싶은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 주안에 성도님들의 모습을 그리며 제주에서 전익성, 전영옥 집사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5월 27일



자녀됨의 은혜



김형선 집사

남편과 함께 시작한 주안 에살 훈련을 3권까지 모두 마치며 우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저희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게 하셔서 순조롭게 훈련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권을 공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행동들을 점검하게 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권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받았다는 사실에 첫날부터 감사하며 눈물로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정 오빠의 건강 문제로 첫 날부터 타주로 떠나야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녀로서 감사함을 알게 해주셨고, 세상의 것들에서 분리되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모임에 힘쓰며, 봉사하라는 말씀 중 어느 하나 잘하는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이 초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것이 셀 수 없이 많음에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갈구하며 기도의 방향이 순간,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정욕을 하나님이란 단어로 포장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자”라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그 분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에 주님처럼 성화 되어가는 내가 되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 독후감- 신경숙 저/ 엄마를 부탁해

상실하고서야 깨닫는 빈자리

“한 인간에 대한 기억은 어디까지일까?”

정읍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와, 서울역에서 내려서 곧바로 지하철을 타려다, 밀리는 인파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려서 실종이 된 엄마를 찾기위해 모여든 가족들은, 실종신고 전단지를 작성하던 중에 각기 엄마에대한 기억을 더듬는데 엄마를 제대로 기억을 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부터 오빠들 그리고 주인공과 동생까지 모두의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한사람 한사람의 특징을 모두 염두에 두고 맞춤형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 내셨던 엄마이건만...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으로 여기며,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켜 주실거라 의심없이 믿어왔던 엄마가, 고단했던 세월을 내어주고 훈장처럼 끌어안은건 ‘치매’ 라는 불청객이 었다. 한사람은 여러명의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살폈는데, 여러명의 가족은 한사람의 실종앞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자기변명에 여념이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많은 엄마의 모습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써 내려갔음을 고백하는 신경숙 작가의 섬세한 감성은 독자들의 마음을,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눈물로 녹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라 감히 평가해본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틀, 엄마! 때로는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을 것임을, 그리고 가끔은 미치도록 그 엄마의 팔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존재했을 것임을, 오늘의 내 마음속 한켠에서 비밀처럼 발견해낸다. 끝내 찾지못한 엄마를, 바티칸의 성모마리아상에게 기도같은 독백으로, 영혼과 육신 모두를 맡기고 서있는 주인공인 큰딸의 그 간절함은, 이 땅의 모든 딸들과 모든 아들들의 간절함이 아닐까? “엄마를 부탁해...”

| 오희경 기자 |

■ 새가족 소개

하나된 마음, 주님 안으로

주안에교회에 나오니, 새가족부 담당이신 분과 전도사님, 권사님 들로부터 처음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며 선물 꾸러미를 일일이 챙겨주셨고, 다른 신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캐서린 권사님이란 분을 교인들 중에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다. 깊은 믿음이 생겨나니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김영혜 집사

찬양의 시간은 환희와 기쁨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길이 열리는 듯 환상적이었고, 교인들이 모두 일어나 찬양할때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신성한 축복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최혜 목사님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부지런함은 깊ियो. 하나님의 본성이고 게으름은 악마의 본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는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즉시 하라’ ‘성공하는 자의 시간표에는 now 가 적혀 있지만, 실패하는 자의 그것에는 next 가 적혀있다’라고 설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악하고 게으른 줄로 살아왔음을 반성하고, 악마의 본성을 버리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울릴 때면,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릴 때, 핑계 대지말고 그 즉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데 힘써야함도 배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마음 깊이 파고드는 설교가 어우러지고 그리고 교회건물의 아름답고 빼어난 건축미가 있고 환한 미소를 띤 교인들이 있는 주안에교회. 교인들이 하나되어 믿음의 용광로를 만들 수 있는 주안에교회의 새가족이 된 것이 못내 뿌듯하고,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해주신 주 하나님께 무한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맥 따라가기 (구약편)

「주안에」 6기

대상: 주안에교회 소모임

2021

신청: 5.30-6.13 (교외캠프)
 BP채플: 6.16-9.8(수) 7:30PM
 벨리채플: 6.18-9.10(금) 7:45PM

주 안에 씨앗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훈련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열매로 우리내리도록

신청: 4/25 ~ 5/9 | 교회 웹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훈련: 5/13 ~ 6/10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민유선,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터,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